

[종합·해설]

민주신당 오늘부터 '컷오프'

17대 大選 범여 경선 현장

"5위안에 들어야"… 막판 세확보 주력

孫-鄭, 치열한 선두 다툼 벌일 듯

"친노 대표주자 누구" 초미 관심도

대통합 민주신당의 예비경선(컷오프)이 3일부터 5일까지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컷오프 성적은 본 경선에서의 표심은 물론 추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9명의 후보는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위 누가 차지하나=이번 컷오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후보는 '대세론'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본 경선에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도 1위를 달려왔던 손학규 후보 측은 큰 격차로 1위를 고수해 대세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주 리얼미터가 실시한 범여권 후보선호도에서도 손 후보는 29%의 지지율로 정동영 후보를 따돌리고 1위를 유지했다.

권영길 경남서도 1위

누적득표율 50% 상회

반환점은 모두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전국 순회경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누적득표율 50%를 넘기면서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로 승부가 판가름나게 될지 주목된다.

권 후보는 2일 '정치적 뒷받침'인 경남지역 개표에서 62.9%를 득표하는 등 순회경선 11개 지역 중 뚜껑을 연 6개 지역을 석권하면서 51.3%를 득표, 노회찬 후보(24.7%)와 심상정 후보(24.1%)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전북지역까지 누적득표율이 46.9%를 보였던 권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창원)가 있는 경남지역에서 압승을 견인해 내면서 '권영길 대세론' 확산의 중요한 계기를 잡은 듯 하다.

특히 경선이 진행될수록 밑바닥 조지표까지 결집되는 현상도 나타나자, 권 후보 진영은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추미애 '컷오프' 통과 할까

천 "호남정치 미래위해 개혁후보 지지해야"

추 "대통합 秋風으로 落李 시키겠다" 호소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유일한 전남 출신 후보인 천정배 의원과 '호남 며느리론'을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전 의원이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우선 천정배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지한 반성보다는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식의 독선과 오만에 가득한 진노(親盧) 후보와 짙은 한나라당 후보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며 "진정한 개혁후보만이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천 후보는 "개혁 후보가 링 위에 올라야 예선의 감동을 부르고 본선의 승리가 가능하다"며 "개혁적 비전과 열정으로 민주세력과 개혁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천정배 카드만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누를 수 있는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히, "전남 출신 정치인으로 지역민의 성원과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광주·전남 출신의 개혁 후보가 당당히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추미애 후보도 이날 전주와 광주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민주신당 대선후보가 되면 대통합 추풍(秋風)이 불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역전승할 자신이 있다"며 "이번 대선은 '추풍낙이'(秋風落李)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이어 "내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영호남을 아우르는 것은 물론 민주당원 및 지지세력 합류가 가능, 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이뤄져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또한, "한나라당이 후보의 구시대적인 '친북좌파' 발언으로 한반도가 냉전종식이 아닌 긴장상태로 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 외교가 솔령인다"며 "이는 외교와 안보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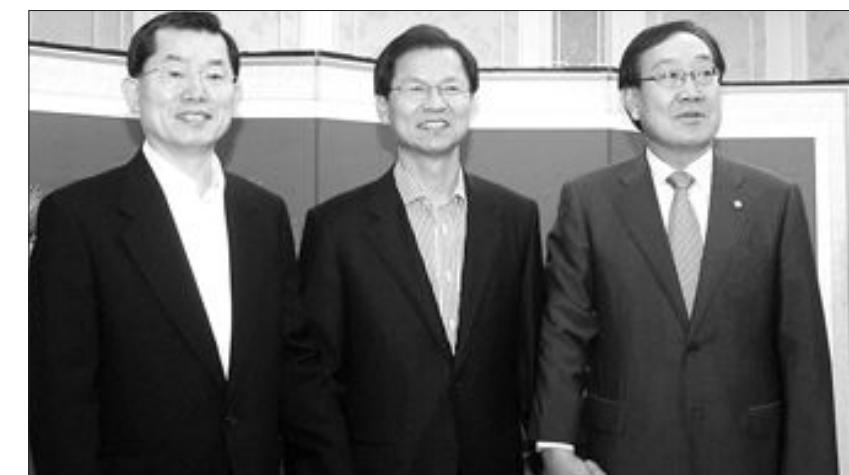
주자 1위는 예비 경선에서 3위가 될 확률이 높다.

'친노 대표주자'를 자임해온 이 후보의 경우 다른 친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4위 이하로 밀리고 다른 친노 후보에게도 뒤처질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5위권 틱터의 향배도 불투명하다. 인2 표제의 변수와 김두관, 신기남 후보 쪽으로 친노 표심의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시민 후보의 경우 4위만 차지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학규, 정동영 후보 등 비노 주자 지지율의 2번째 표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국현(왼쪽) 전 유한킴벌리 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천정배(가운데)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일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정책 공조를 위한 조찬 회동을 갖기 전에 문 대표 지지를 선언한 이계안 의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국현·천정배 "대선까지 정책 공조할 것"

이해찬, 경선 대책위 발족 대선체제 돌입

○…대권 도전을 선언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천정배 대선 예비후보가 1일 "대선까지 정책 공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아침 광주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진짜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회동에 참석한 이계안 의원이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건설현장을 방문했으며 문 후보는 국립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주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2일 '범여권의 손학규 줄서기'가 가진이라는 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제발 노 대통령은 대선 판에서 한발 비켜서 계셔 달라"며 "열린우리당을 문닫게 한 장본인이 노 대통령 아니냐"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퍼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이 끼면 길수록 이명박 후보가 올라가고 신당 후보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후보의 토건국가론과 대비되는 만큼 민주개혁진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2008학년도 교사임용시험 (유치원·초등교사-11월 18일시행, 중등교사-12월 2일) 시행예정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국내영교육학 문제풀이특강

개설 강좌

국내영 교육학

내용영역별 문제풀이반

초등교육
위재권선생

중학교제 풀이반

전공수학
임대성선생

기본문제 풀이반

무료공개설명회 1:1전문상담 환영 http://www.naeyoung.com

처음자에게 특별하게 해주는 상담을 통하여 학업 프로그램을 체크합니다.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문의 주세요.

인터넷 동영상강의 에듀뷰넷

www.eduvieview.net

단체 10명이상 수강등록시 할인혜택

※ 청강과 비강유의(현제 청강과 접수증)

개강 10월 1주차

개강 10